일을 없었습니다 이태까지 허락받고 부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막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건 김하정 오늘이 국정 감사 드립니다 국민들은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써져 버리잖아요 궁금해하고 또 국회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조사하였더니 정치선동 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잘 합니다 여러분들 읽을 붙이고 있고 제가 앞에다가 배우가 범인이다 좋겠습니까 검찰조사 저지하는 국민의 힘이 의심스럽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선동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당해 가셔서 대변인도 있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좀 성실히 얼마고 임하고 여야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 국가 보여주는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하십시오 좀 많이 하면은 또 또 또 대형 해서 아버지 돈 어디로 가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지 공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충분히 뜻을 토요일 하셨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 쓰니까 그 말씀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 스퀘어 아니 1억 1억 5천에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저희가 뭐 이재명 없습니다 다 언론에 나온 거고 아니 다 언론에 미리 나온 거 만들어 낸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화천대회 누구 거냐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이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확인하면 됩니다 아하 10시 신청하십시오 끝나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공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훈이가 그래서 일단 간사는 새로 윤석열호를 포함한 정리를 새롭게 신청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왔습니다 정장 입어야 말로 정치공세 아닙니까 물타기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로남불 당일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받지 않았다고 던지기 슬픈 아닌가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시는 위원장님 지금 사건을 이유로 증인채택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원리입니다 헌법 제 16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로막는다면 그게 민주국 갑니까 특히나 지금 경찰 검찰 수사를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정보분석원 작업을 5개월 묵혀 놓고 있다가 경기남부청 보내서 지금 겨우 선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시간 다 벌어 주고 이제 와서 뒤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하나 박스 못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보자면 윤석열징계 안경 쓴 사람 아닙니까 이게 더 전담수사팀 이거 아니면 전담 변호사 팀이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겁니다 아니 아까 뭐 이렇게 쓰니까 전화 주십시오 결말 안 받아 진짜 이건 셀프 선은 실체적 진실을 가격이 아니라 대장동 몸통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은행 국정감사 정남면 채팅 못 하고 진상규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금패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걸 가로막는 제가 바로 범인이 아니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남기지 않고 국회의장을 바로 세우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장동 저희가 요구한 핵심적인 증인채택을 Trail 우리 이제 tv 볼 거야 정말 빠른 수사를 간사님께서 디프라 말씀하셨는데요 특근 거기 가면 됩니다 그 어제 거하고 오늘 아마 송기도 손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관 있어요 여기서 특급 논의해봐야 저는 데이터를 시간 별 교부하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우리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딸 왜 자꾸 하십니까 전주 나고 서로가 협상해서 학교에 생각을 충분히 뭐 야당이 나름대로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방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거 하고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은 구글 하는 것이 국책과제로 국민에게 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장이에요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장난 아니거든요 예 인터넷 저희들이 원하는 거 우선은 제가 우리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고 제가 상황을 회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국정감사에 자리에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비리입니다 대장동 지금 개발 비가 정말 돈으로 4600점 7700 올라가더라구요 좀 투자비법 우리 국민들이 좀 알려 드려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국민의힘 데이트라고 말씀을

지금 또 우리 성남개발 도시개발공사 던지는 것이 지금 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하는 거지 이걸 전혀 뭐 지금 저 스스로 우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니까 불러서 우리 스스로가 받아 보게 되면 그걸 왜 그 저 일반 증인 신청을 한 걸로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좀 말씀 좀 들어 주시면 민형배 어린이 말씀 예 강민국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위 국감장에 느닷없이 수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하고 연관되어 있는 금융권에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보자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잠깐만 계세요 말씀 중에 중간에 저 참고해 주시고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 게임 하자 그랬잖아요 특검 준비하는 동안에 두세 달 걸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지 이거 속상하다고 21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미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경찰 검찰 이게 지금 시작해서 반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잘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미숙

당장이라도 왜 이름이 그럼 저기 저희들이 여기다가 화천대유는 국민은행 게이트 다 뭐 곽상도 의원 윤성열 하면서 하면 괜찮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정문 북광장 이니까 일단 이걸 처리 하세요 독감 못합니다 위원장님 열어 주시는 데모사 체력이네 7천 일하시는데 땅 팔아서 사천읍 아파트 팔아서 4,500원 8천 5백 원짜리 게이트입니다 단군이래 이만큼 큰 데이트 모르겠습니다 온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금 1분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왜 주문을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안 해 주니까 난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해 주니까 난 끝나고 말씀 하세요 저는 지금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걸로도 사십시오 제발은 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간사님 우리 김병욱 간사님 9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일하고 국회의원 9분하자면 서요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게 김병오 힘들어 계시죠 이재명 지사 들어 계시죠 유 동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건 아는데요 들어있죠 김문기 다 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비활성화

원인들은 아 그냥 개별적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곶감을 진행해야 돼 그런 헌법적인 책 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질서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는 뭐 저기 개인의 정당활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쇼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윤재옥 위원장님 김유범 간사님 박수영 어머님 모두 대장정 데이트 특별전 의대 출근을 하고 있느라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편하세요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똑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정당활동 2조 똑같은 있으니까 열심히 일 하세요 근데 배터리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자기분수 말고 얘기합시다 네가 나보다 대부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아니이 회장에서 특정인물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간사님 민주당 간사님이 활동 자체를 정치활동을 그렇게 하시면 실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쪽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심령을 걸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일하면 김원동 요번에는 애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국정감사 하자는 거 잖아요 실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보고 갑니다 실체를 계좌 추적하고 해야지만 물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당장 유모씨 됐어요 조사를 하고 가고 하면 될 일을 그 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결과가 하면 되는 거야 특정 인물 특정후보 확정되지 않은 것 사실 토대로 해서 면책특권 뒤에 선물로 가나 너는 말도 안 되는 변신에 지금 이걸 그대로 든다면 저희들이 신나는 받겠습니까 높이차이가 아니에요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끝납니까 섞어 합시다 가기 전에 자 등인데 다 채팅해요 간사 협의해서 다 합시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인 뭐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특정인물을 걸어나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신게 맞다고 봅니다 일곱 개 법인 이사 못 놓고 3464 먹을 가져가서 115,000 프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화천대유 는요 당사에서 577 어 그 배당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도 집을 자가지고 팔아서 4500원을 또 먹고 있습니다 5077 만별이다 만배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성남 시청으로 같습니다 갔더니 성남도 계곡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지도 못 합니까 어떻게 증인 신청을 했는데 한 명도 안 해주니까 한 병도

삼정동 0 그래 놓고 그래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하신 겁니다 한 명 보내 주셔야죠 어디든지

그 시작하면서 예 야간에 만 원 의원님 드릴까요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증인채택 문자 국정감사장 안에 지금 부착한 그 집과 관련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그 권사님들이 문제를 중심으로 원만한 국정 했다가 회비를 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쓰는 합니다

위원장님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선에서 말씀을 저렇게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모든 것을 할 때는 여야 간 시간에 사진 합의가 종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치적 0 3 1 박 부장을 할 때는 그래도 상호간에 서로 대화가 전제가 되는데 그런 데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간사님의 또 또 안 듣고 싶어 이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라고 뭐라 버리면 저희들은 상당히 입에 자갈을 물리는 증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은이가 그동안에 뭐 여자가네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잘 챙기고 잘 지내 온 건 인정합니다만 이번 증인신청 과정인 채택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지키겠어 신청한 증인들이 단 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한 결과 저희들로서는 이게 최소한의 저희들 주장을 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정치공세만을 위한 공짜라고 없습니다 그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미 뭐 저희가 이재명 게이트 은은한 거는 받고 저희들이 자진해서 했고요 거기에 저희도 저도 지금 한 마디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데이트라고 저장 하시는데 그 또한 어찌 보면 알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먼저 말을 했다고 그쪽에서도 하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상위 활동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쟁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실과정의 부합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적 공방을 개인에 대한 잘못됐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증인채택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있어서 는요 그 전화 동인 1호 그 경찰총장 아버지 집을 샀다고 그 뭐 100세를 뭐라 그래야 돼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지상파 방송에서 응급 했는지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밝힐 되면은 관련된 사람 불러 이야기를 듣고 추정하고 해야죠 그렇게 하는게 이른바 말하는 경쟁이고 요즘 뭐 천화동인 뭐 위리안치 나오니까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실한 밝혀집니다 그 그게 로또복권 확률이라고 5,000만 원 넣어 가지고 그 사천읍 가까운 지내고 또 아파트 팔아 가지고 또 분당 2일까지 하면은 8천 원 가까이 된다

그게 도와주고 기사에 따르면네 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예약 간사님들 하고 정해 시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양당에서 지금 부천 테마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인원이 됐으니까 그 회원님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나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사관에 협의를 좀 존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해 말을 붙이고 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어쨌든 사전에 예약 아네 좀 이렇게 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실에 쓰는 법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니 저기 위원장님네네 지금네 말씀하십시오 아니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놀아야 될 것은이 앞에 붙임 피켓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핵심 사안인 대당 대장동 문제의 진실에 잠깐만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반나절이 중요한 시간에 반나절을 그 허비하게 됐는데 지금은 본질은이 앞에 붙어 있는 스티커 붙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금 최대 현아님 대장동 문제에 실체진실주의 접근하기가를 부르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고 지금 이걸로이 시간을 보냈다 말이지요 지금 서로 오전 내내 얼굴을 붉히며 공방을 벌였다 고하는데 정의가 우리 상민이가 전통적으로 신사적이고 목욕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해 왔지만 오죽하면이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국회의원 3선을 정부에서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역사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산 거는 국민의 힘이 되는 거야 결단 최악의 부동산 개발이다 누가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당신이 그래서 그 말씀을이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증인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있듯이 모든 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의심 이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정 태권도 못 하겠다 국정조사도 이렇게 멋지고 있으니까 상인이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장으로 몰라요 이것을 피켓을 너는이 문제로 지금이 시간

이거는 민주당 오겠네 어느 상임위에서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전래는 없었다 항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까지 원천적으로 봉산점 없었다라고 전화 이번 국감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 이번 국가대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보면 그런데 서정아 들어 보세요 짜증 풀어야죠 근데 화천대회 소유가 할까요 자유로부터 돈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 될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곽상도 아들 50억 받았어요 곽상도 아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증거가 있네 제 말 있으면 뭐든지 진상규명을 하려면 단세포적 잡아서 그러면 버려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얘기하다 니깐요 누굽니까 곽상도 어머니아들 오시오 받았어요 박영수 특검의 다리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인 신청 기간이 없어요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일방적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안 받는게 아니라 원래 그 쪽이 안 먹고 있다니깐요 왜 그러세요 뭘 자연인들 오늘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른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정말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갖고 어떻게 주변에 노비를 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